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손실과 피해는 물론, 국민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지고 수능까지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감지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던 이번 재난은 평상시에도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공사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5일간)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국가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주요 재난대비 유관기관과 연계, 독성가스 및 지진재난 등 기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다시 한번 재난대응의 필요성과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의미에서 KGS의 안전한국훈련 과정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훈련 실시를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지진·풍수해·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 실시

드르 드 쳐다 재난대응자비 화유채 흥려증가 극대하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 실시
드론 등 첨단 재난대응장비 활용해 훈련효과 극대화] ”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금번 훈련을 위해 우리 공사는 지난 8월부터 훈련의 기본계획 및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하는 기획회의(3차)와 훈련 시나리오를 정비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회의(2회), 지역별 자체 비상연락망(지역본부·지사) 재정비 등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11월 1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에서는 황화수소 유출 사고를 가정해 오전은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토론기반훈련(도상훈련)을, 오후에는 국내 산업가스 사고예방의 컨트롤타워이자, 독성가스·잔가스·중화처리를 위한 설비가 갖춰진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산안센터)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진천군·진천소방서·진천경찰서·진천보건소·육군제37사단·KT·한국전력공사·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등 총 10개 유관기관 종사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지휘차량 및 재난 현장을 실시간 근접 촬영하기 위한 드론이 투입되면서 실제의 다급한 재난상황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또한 극인화성 물질인 황화수소는 흡입시 두통, 현기증, 눈·피부·호흡기 자극, 액체 접촉 시 동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특수 재질의 레벨 A급 보호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으며, 사고인지 및 신고부터 상황접수 보고·전파, 초기대응 및 비상대응과 수습·복구까지 시나리오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산업가스안전을 책임질 산안센터에서 12월 준공식 행사를 앞두고, 유해 화학물질인 독성가스 유출상황을 가



산업가스안전을 책임질 산안센터에서 12월 준공식 행사를 앞두고, 유해 화학물질인 독성가스 유출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과의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며 대응역량을 향상시킨 이번 재난훈련은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오늘 훈련을 실전처럼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KGS는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공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GS 오재순 부사장



“ 전년과 달리 일반국민의 참여하에 다양한 훈련 구성
어린이 체험단 부스에서 가스안전 가상현실(VR) 체험 실시 ”





무엇보다 올해 훈련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이 훈련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옥동초등학교 어린이 체험단 23명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참관과 가스안전 가상현실(VR) 체험을 실시하는 등 전년과 다른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단 부스 내에 마련된 가상현실(VR) 체험 장비를 통해 가스안전 요령과 상황별 대처 방법 교육(지진발생 및 캠핑장, 주방 및 보일러실에서 가스사고 예방법),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법 등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을 실시하여 교육효과 상승은 물론, 조기교육을 통한 어린이 가스안전의식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훈련 현장에는 대한적십자, 현장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응급의료소, 시신영안소 등의 부스가 마련되어 독성가스 현장에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신속한 안전대응과 행동요령을 점검·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NTERVIEW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오늘 VR체험을 통해 알게 됐고, 직접 체험해보니 무척 생생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오늘 배운대로 가족들과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배운 내용 그대로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싶어요.

옥동초등학교 6학년 **장민정**



아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아빠를 통해 가스 안전에 대해 많이 들곤 했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가스 사고에 대비하고 응급 처치하는 방법들을 직접 VR체험으로 배워보니 신기했어요. 오늘 배운 대로 집에 돌아가서 가스 밸브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거예요. 실제 위기상황을 연습 없이 마주했다면 당황했을 텐데, 오늘 미리 체험해봤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동초등학교 6학년 **이승엽**



〈지진대피훈련 및 화재발생 대응 훈련〉

〈지진대피훈련 및 화재발생 대응 훈련〉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추가 교육 실시

11월 2일에 있었던 지진대피훈련에서는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숙달, 대피 장소 및 대피로 사전 확인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는데요. 공습경보 발령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장소 유도를 위해 사전에 직장 민방위 대원 중 소수방소대, 의료구호소대, 기동소대로 이루어진 통제요원 35명을 구성하여 10월 31일 본사 3층 직무 교육장에서 대피 유도에 대한 임무 부여 등 사전연습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훈련 당일에는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지진발생과 대피안내 방송이 나갔는데, 전 임직원이 책상 아래에서 건물 밖으로, 이후 운동장 단상 앞까지 순차적으로 대피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피 후에는 지진 행동요령 교육과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추가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신속한 상황전파는 물론 시나리오대로 명확한 현장 행동이 이루어져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자체 평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의 종합점검 수행 노력

마지막 날에는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훈련 자체 평가회의를 열었는데요. 부사장님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하여 비상소집훈련부터 토론 및 현장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과, 재난현장-종합상황실-현장지휘차량의 다자간 영상회의, 드론 등의 첨단 재난대응장비를 활용한 점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공사 지난대응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었으며, 안전한국훈련 체험단과 어린이 체험단 등 일반 국민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훈련 참가/체험까지 함께할 수 있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었으며, 안전한국훈련 체험단과 어린이 체험단 등 일반 국민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훈련 참관/체험까지 함께할 수 있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금번 포항 지진에서도 증명되었듯 재난대응 안전훈련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반복된 연습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KGS.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및 지자체와 재난대응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